

그레이스 켈리(Grace Kelly)의 레이디라이크 스타일

鄭素映* · 曹圭和

梨花女大 大學院 衣類織物學科 博士*, 梨花女子大學校 衣類織物學科 教授

A study on the Ladylike Style of Grace Kelly

Chung, So-Young* · Cho, Kyu-Hwa

Doc., Dept. of Clothing and Textiles, Ewha Womans University*
Prof., Dept. of Clothing and Textiles, Ewha Womans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ladylike style of Grace Kelly focusing on her costume design of 1950s movie and star image, and to understand how she became a fashion icon today. Her city elegant look was usually composed of A line or H line suits and dresses, pearl jewelry, gloves, handbags and her classic ladylike attitude. Kelly's luxury casual look epitomized a relaxed elegance based on the American sporting image including the Hermès "Kelly" bag. Her sexual elegant look showed the combination of freshness, ladylike virtue and underlying sex appeal. Her self-confident, ladylike style appeals to modern fashionable women who likes to be elegant but also sexy.

Key words : Grace Kelly(그레이스 켈리), ladylike(품위있는), city elegance(도회적 우아함), sexual elegance(성적매력을 감춘 우아함), luxury casual(상류층 감각의 캐주얼)

I. 서론

20세기 말부터 의복의 캐주얼화라는 패션 흐름 속에서도 2004년 레이디라이크 스타일(ladylike style)은 트렌드를 주도하였다. 레이디라이크 스타일이란 여성의 우아함과 품위를 강조한 고전적인 스타일을 말하며, 넓게는 1920

년대에서 1960년대에 걸쳐 유행했던 우아한 여성미를 강조한 슈트, 드레스에서 볼 수 있었다. 2004년 복고풍 테마 속에서 디자이너들은 고전적인 숙녀에서부터 장식적인 빈티지 풍의 낭만적인 숙녀 스타일까지 다양하게 표현했는데, 1950년대의 허리를 강조한 실루엣에 리본 디테일과 브로치, 벨트 등의 액세서리와 함께

제시하였다. 2005 봄·여름에도 1950년대 스타일을 중심으로 파스텔 컬러와 리본, 여성스런 꽃무늬나 도트무늬, 볼륨감의 강조로 젊고 발랄하게 전개될 것이 예상된다.¹⁾

특히 오늘날 클래식 아이템이 된 에르메스(Hermès)의 켈리 백(Kelly Bag)에서부터 2005 S/S 구치의 플로라(flora) 라인으로 부활된 에르메스의 켈리 스카프 꽃무늬에 이르기까지 그레이스 켈리의 레이디라이크 이미지는 현대패션에 중요한 영감의 원천이 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 본 연구목적은 레이디라이크 이미지를 대표하는 스타일의 한 사람인 그레이스 켈리(Grace Kelly)의 패션 스타일을 고찰하여 그 특징과 패션사적 의의를 살펴보고, 현대 디자이너들에게 디자인발상을 위한 자료를 제공하는 데 있다. 이것은 상류층 출신의 젊은 여성들이 주고객인 럭셔리 브랜드에서 트렌드에 맞는 다양한 감성의 레이디라이크 스타일을 제시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방법은 1950년대 그레이스 켈리의 영화 의상²⁾과 홍보용 사진, 언론매체 보도 기사 등을 DVD와 단행본, 잡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수집, 연구하였고, 2000년대 이후 국내외 컬렉션 정보지를 통해 현대패션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았다. 연구내용은 현대에 나타난 레이디라이크 스타일의 일반적 경향, 1950년대 그레이스 켈리의 등장배경, 영화 경력과 스타 이미지를 살펴보고, 그녀의 패션스타일을 고찰하여 그 특징을 도출, 현대패션에 미친 영향과 의의를 연구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2000년대 이후 나타난 ‘레이디라이크(ladylike) 스타일’ 고찰

패션에서 ‘레이디라이크 스타일’은 21세기

들어 패션계의 중요한 축을 형성하며, 복고풍, 빈티지와 결합하여 시즌마다 새로운 모습으로 소개되었다. 2000 F/W 프라다(Prada) 컬렉션의 복고풍 레이디라이크 스타일이 등장³⁾한 이래 2004년 F/W 컬렉션에서 절정에 이를 때까지 디자이너들은 그레이스 켈리, 오드리 헵번(Audrey Hepburn), 재클린 케네디(Jacqueline Kennedy) 등 많은 유명 인사들의 스타일에서 영감을 얻었고, 1950년대, 1960년대 스타일에 대한 회고를 불러일으켰다.

레이디라이크(ladylike)란 ‘숙녀와 같은’, ‘외모나 매너에 있어 숙녀와 같은’, ‘우아함이나 적절함에 대해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⁴⁾의 의미이며, 패션에서 ‘레이디라이크 스타일’은 복고풍의 고전적인 스타일을 현대에 맞게 선보인 절제된 우아함과 부드러운 여성미가 핵심이다. 특히 의상과 함께 착용자의 단아한 몸가짐과 태도, 자신감이 숙녀의 이미지를 완성한다.

패션사적으로 넓게는 1920년대에서부터 1950년대, 1960년대에 유행했던 우아하고 기품 있는 스타일이 해당하지만, 일반적으로 1947년 크리스티앙 디오르의 뉴 룩에서 영향을 받아 1950년대 절정을 이루었던 치마를 부풀리고 잘록한 허리선을 강조한 A라인이나 현대적인 H라인이 대표적이다.

2000년대 이후 컬렉션에 나타난 ‘레이디라이크 스타일’은 재킷과 펜슬 스커트, 부드러운 블라우스, 혹은 원피스와 재킷으로 이루어진 단정함을 주는 테일러드 슈트와 드레스가 중심 아이템으로 떠올랐다. 소재는 실크, 트위드나 헤링본과 같은 울이 선호되었고, 리본, 레이스, 플리츠, 개더 장식, 꽃무늬 등의 프린트를 적절히 활용하여 여성미를 더욱 강조하였다. 일반적으로 진주 장신구, 브로치, 꽃무늬 등의 스카프, 핸드백, 허리를 강조해주는 벨트 등의 액세서리가 더해지며, 숙녀의 필수품으로 인식되었던 모자와 장갑을 더하면 격식을 차린 느낌이 한층 강조되었다. 겨울철에는 모피를 사용한 디테일과 액세서리로 고급스러움을 주었다.

이러한 레이디라이크 스타일의 여성적 우아함은 디자이너와 시대에 따라 현대적으로 해석, 변형되어 소개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젊은 층을 중심으로 트위드 재킷과 진즈를 매치하는 등 수트의 일부와 캐주얼 아이템을 매치하여 발랄하게 표현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2. 1950년대 할리우드 스타 그레이스 켈리의 등장 배경

그레이스 켈리가 1950년대 미국에서 할리우드 스타로 성공할 수 있었던 사회문화적, 복식사적 배경을 다음 세 가지로 지적하였다.

1) 미국의 경제 부흥과 전통적인 여성관의 부활

1950년대 미국은 고도의 경제성장과 소비문화를 이룩하여 낙관적인 분위기 속에서 풍요로운 상품, 레저를 즐기는 여유로운 생활방식을 영위하였고⁵⁾, 전통적인 여성, 가족 중심의 이데올로기가 대두하면서 많은 여성들이 안전하고 평화로운 가정을 중시, 직장을 포기하고 가정주부가 되었다.

핵가족의 일반화 속에서 여성은 편안한 가정을 지키는 가정주부일 뿐 아니라 남편에게 매력적으로 보이도록 완벽하게 차려입고 있어야 했다. 1950년대 중반까지는 아직 격식을 차린 옷차림이 중시되었고, 숙녀는 모자와 장갑을 갖추도록 요구되었다.

일반 여성들의 이상적인 여성상은 풍만한 가슴의 곡선미로 글래머 룩을 보여준 할리우드의 제인 러셀(Jane Russell), 마릴린 먼로(Marilyn Monroe)보다는, 데보라 커(Deborah Kerr), 그레이스 켈리, 킴 노박(Kim Novak) 등 차갑고 세련된 스타들이었다. 이들은 영화 속에서 좋은 가문 출신과 경제적 안정, 세련된 친구들과 하인들이 있는 저택을 소유한 상류층 이미지를 대변하며, 파리의 패션 하우스 무대에 어울리는 우아한 모델들이었다.⁶⁾

2) 오트 쿠튀르의 부활과 번영

2차 세계대전 이후 여성다움에 대한 강한 열망으로 여성의 가녀린 어깨와 가는 허리, 봉긋한 가슴을 강조한 뉴 룩이 대중적 지지를 얻기 시작하였다. 뉴 룩의 커다란 유행과 함께 '1950년대는 크리스티앙 디오르(Christian Dior)의 라인 알파벳 시대'라고 부를 만큼 디오르가 파리 오트 쿠튀르의 부활과 국제화 시대를 열었다. 전후 경제력을 바탕으로 미국 상류층 여성과 백화점, 기성복 제조업자들이 오트 쿠튀르의 주요 고객이 되었다.

디오르 외에도 1937년 하우스를 오픈, 전후 국제적인 디자이너로 부각된 발렌시아가(Balenciaga)는, 의복을 만드는 장인(匠人)의 태도로 뛰어난 창의력과 커팅 기술, 색채감각으로 명성을 얻었고, 심플하고 스포티한 라인을 제시하였다. 그는 1950년대 중후반 시대의 흐름이 슈미즈 룩으로 정착해가는 것을 내다보았다.⁷⁾ 1954년 컴백한 샤넬은 저지나 트위드를 소재로 가장자리에 브레이드 장식을 한 카디건 스타일의 재킷과, 무릎 아래 5-10cm까지 오는 샤넬 라인의 스커트로 이루어진 카디건 슈트(cardigan suit)⁸⁾를 소개하여 옛 명성을 되찾았다.

3) 미국 패션의 전성기

2차 대전동안 미국이 자국의 패션 디자이너를 양성, 후원한 결과, 뉴욕은 메인보처(Mainbocher), 찰스 제임스(Charles James), 발렌티나(Valentina) 등이 활동하는 하이패션의 중심지이자 기성복 산업의 중심지가 되었다.⁹⁾ 캘리포니아 특히 로스앤젤레스는 비치웨어와 스포츠웨어로 유명했다.¹⁰⁾

1950년대 쿠튀르의 영향력으로 일반 여성들 사이에 모자, 장갑을 갖추고 몸에 잘 맞는 드레시한 스타일이 지배적이었던 한편, 가정 중심의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한 캐주얼 분위기가 증가하였다.¹¹⁾ 따라서 여성들은 경우에 따라

소재를 달린 셔츠 드레스 등을 애용하였고, 낮부터 밤까지 다양한 활동에 적합한 의상을 선호하였다. 그리하여 단품 위주의 세퍼레이츠 룩과 스포츠 캐주얼 의상에 뛰어났던 미국 패션은 전성기를 누릴 수 있었다.

III. 그레이스 켈리(Grace Kelly)의 영화 경력과 스타이미지

1950년대 그레이스 켈리(Grace Patricia Kelly, 1929-1982)가 보여준 아름답고 세련된 사교계의 명사 유형은 대담한 섹스어필과 과장된 몸짓으로 대중의 인기를 얻는 할리우드 속 성상 일관성을 유지하기 힘들기 때문에 모방자가 흔치 않다.¹²⁾ 이러한 이유로 오늘날까지 많은 이미지 계승자를 낳은 마릴린 먼로와는 달리 그레이스 켈리의 쿨 블론드(Cool Blonde) 이미지는 그녀만의 고유한 것으로 남아있다.

필라델피아의 부유한 가정환경에서 성장, 뉴욕에서 연기수업을 받았던 켈리는 금발과 파란 눈, 섬세한 체형으로 곧 『Cosmopolitan』 등의 잡지 표지와, TV, 인쇄매체 광고에 출연하였다. <The Father>로 1949년 브로드웨이 데뷔, 1950년 영화 <Fourteen Hours>에 출연한 이후 1953년까지 60개 이상의 텔레비전 쇼에서 활동,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다. 1952년 MGM과 7년간 계약한 후에는 연기자로 인정받기 위해 수영복 차림의 사진 촬영과 신체 치수 공개를 거부, 홍보담당자들을 당황하게 만들었다.¹³⁾

고전적 웨스턴 <하이 Noon(High Noon)>(1952)의 성공에 이은 클라크 게이블(Clark Gable), 에바 가드너와 함께 출연한 존 포드(John Ford)감독의 <모감보(Mogambo)>(1953)로 아카데미 여우조연상 후보에 올라 연기를 인정받았다. 다음 해 켈리는 조지 시튼(George Seaton) 감독의 <Country Girl>(1954)에서 주인공 조지 일레인(Georgie Elagin)¹⁴⁾을 연기하여 마침내 1955년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수

상하였다.

이후 켈리의 성공은 심리묘사에 뛰어났던 당대의 거장 알프레드 히치콕(Alfred Hitchcock)과의 작업으로 궤도에 올랐다. 켈리만이 가진 차가운 금발미인의 우아함과 은근한 성적매력을 발견하였던 이 명감독은 <다이알 M을 돌려라(Dial M for Murder)>(1954), <이창(Rear Window)>(1954), <나는 결백하다(To Catch a Thief)>(1955) 세 편의 영화에서 켈리가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켈리는 “옷에 관한 한 히치콕 감독의 신임을 얻어서 이후 <이창>, <나는 결백하다>에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입을 수 있는 자유를 얻었다.”라고 하였다.¹⁵⁾ <이창>에서 은근히 자신의 정열을 드러내는 매력적인 여성을, <나는 결백하다>에서는 부유한 미모의 상속녀로 남성을 유혹하는 연기를 보여주었다.

1954년 <이창>의 성공으로 그녀의 얼굴은 전 미국에서 『Time』, 『Look』, 『Saturday Evening Post』, 『McCall's』, 『Ladies' Home Journal』 등의 잡지 커버에 등장하였다. 타임즈 매거진(Times Magazine) 1954년 커버스토리 “신사는 숙녀를 좋아한다. Gentlemen Prefer Ladies”¹⁶⁾에서 알 수 있듯이 켈리는 육체적 매력이나 스캔들 없이 연기력을 가진 숙녀로서 성공을 이루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스타로서의 절정기를 누리던 켈리는 <Swan>(1956), <상류사회(High Society)>(1956) 이후 은퇴하여 모나코의 국왕인 레니에 3세와 결혼, 모나코의 왕비가 되었다.

IV. 그레이스 켈리의 패션 스타일

그레이스 켈리의 패션 스타일은 대표작 <다이알 M을 돌려라>, <이창>, <나는 결백하다>, <상류사회>의 DVD와 각종 매체에 소개된 사진 등을 통해 고찰하였으며, 그 결과 도회적 세련미의 시티 엘레гант 룩, 우아함에 내재된

은근한 성적 매력의 섹슈얼 엘레гант 룩, 그리고 상류층 감각의 럭셔리 캐주얼 룩, 세 가지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1. 시티 엘레гант 룩(City elegant look)

그레이스 켈리는 1950년대 일반 여성들이 실제 입을 수 있는 고상한 숙녀의 패션 스타일로 도회적 세련미와 우아함의 전형을 만들어냈다. 단정한 헤어스타일과 화장, 몸매를 돋보이게 하는 드레스와 테일러드 슈트, 낮은 굽의 구두, 진주, 모자와 장갑을 선호하는 취향 등은 미국 젊은 가정주부의 이상적인 모델이 되었다.

대담하게 성적 매력을 강조하는 글래머 룩에 익숙했던 할리우드 캐스팅 감독들은 켈리의 차갑고 우아한 몸가짐을 유형화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녀는 자신에게 어울리는 우아하고 절제된 스타일을 고수하였다. 켈리의 스타일은 파리의 개성 강한 쿠튀르나 눈부신 할리우드 글래머러스 의상보다는 뉴욕이나 런던의 세련되고 몸에 잘 맞는 엘레강스 스타일에 더 가까웠다.¹⁷⁾ 즉 도시감각의 세련됨, 뉴욕과 같은 대도시의 시티 엘레강스를 보여주었다.

켈리의 엘레강스 룩은 봉긋한 가슴선을 강조하지 않은 점이 특징인데, 1950년대 가슴을 강조하던 유행경향을 따르기보다 오드리 헵번과 함께 가슴패드 착용을 거부¹⁸⁾할 정도로 자신만의 스타일에 확신이 있었다. 헵번의 쿠튀르풍 우아함은 오트 쿠튀르 디자이너 지방시(Givenchy)와의 친밀한 공조로 구축되었지만, 켈리의 엘레гант 룩은 오트 쿠튀르 디자이너 그 누구와도 연관되지 않은 켈리만의 품위 있는 스타일로 남아있다.

패션계에 종사하는 리사 프레몬트(Lisa Fremont)를 연기한 <이창>에서 도시감각의 세련되고 기품있는 의상들이 등장하는데, 특히 앞뒤로 깊게 V자로 파인 타이트한 검은색 탑과 넓게 퍼지는 우아한 흰색 스커트가 유명하다 <그림 1>. 넓게 퍼진 흰색의 틀과 시폰 스커트

는 3/4길이며, 허리선에 잔가지 무늬(sprig pattern) 검은 시폰의 자수 장식이 있다.¹⁹⁾ 같은 영화의 베일이 달린 필박스 햇과 열은 올리브 그린 슈트는 전체적으로 단순한 튜블러 실루엣에 풍부한 진주 장신구로 고급스럽고 우아하게 연출하였다<그림 2>.

켈리는 영화 외적인 삶에서도 영화 속의 격식을 갖춘 우아한 옷차림을 일관적으로 보여주었다. 1956년 레니에 공과의 결혼을 위해 모나코로 떠나는 날, 모자와 장갑, 베이지 슈트 차림으로 미디어의 취재열기 속에서도 침착하고 우아함을 잃지 않았다<그림 3>.

2. 럭셔리 캐주얼 룩(Luxury casual look)

켈리는 평범한 셔츠 블라우스와 시가렛 팬츠, 에스파드릴, 블루진 차림으로도 우아함을 잃지 않는 상류층 감각의 캐주얼 룩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럭셔리 캐주얼 룩은 아메리칸 스포팅 이미지에 기반을 둔 것으로 오늘날까지 상류층 사이에서 이상적인 것으로 남아있다.²⁰⁾

켈리가 보여준 상류층 여성의 우아한 캐주얼 룩은 오드리 헵번이 사브리나 팬츠와 플랫, 터틀 네크라인 스웨터로 구체화한 말괄량이 소녀의 캐주얼 룩과는 차별화되었다.

<상류사회>에서 갈색 톤으로 통일한 셔츠 블라우스, 바지와 벨트, 주황색의 손수건과 에스파드릴을 매치한 캐주얼 룩은 조화로운 색상 배색과 켈리의 위엄있는 태도로 고급스러움을 잃지 않았다<그림 4>. 또한 드라이빙할 때 입었던 후드 달린 A라인의 망토형 코트는 다양한 색상의 스트라이프 패턴이 후드 안감으로 노출되어 스포티하면서 세련된 맛을 주었다<그림 5>. 이밖에도 사치스럽고 낭만적인 느낌의 차이니즈 칼라와 매듭단추가 달린 라운지웨어, 흑백의 대비로 눈길을 끌었던 흰색 챙의 모자, 앞이 오픈된 개더스커트와 가방의 비치웨어, 청바지에 셔츠 블라우스 차림에서도 우아함을 잃지 않았다<그림 6, 7, 8>.

특히 켈리가 애용하여 유명해진 에르메스의

켈리백은 본래 사냥할 때 말안장에 부착했던 스포츠와 관련된 아이템²¹⁾이었으나, 1930년 에르메스가 핸드백으로 소개, 켈리가 애용하면서 신분을 상징하는 럭셔리 아이템이 되었다. 켈리가 고급스런 셔츠웨이스트 드레스 위에 모피코트를 걸쳤을 때나 스커트에 카디건차림에서 보여준 것처럼 이 커다란 백은 정장과 캐주얼 차림 어디에도 잘 어울리면서 편안하고 고급스러운 감각을 돋보이게 해주었다<그림 9, 10>.

3. 섹슈얼 엘레강스 룩 (Sexual elegance look)

그레이스 켈리의 패션스타일은 도회적 감각의 우아한 룩인 동시에 성적매력을 풍기는 섹슈얼 엘레강트 룩이라 할 수 있다. 켈리 매력의 본질적인 요소는 차가운 우아함 속에 감추어진 미묘한 성적 매력이었다. 그녀는 예의 바르고, 품위가 있으며, 세련되어 감히 근접할 수 없는 우아한 숙녀이면서도 오드리 헵번은 가지지 못했던 은근한 에로티시즘을 지니고 있었다.²²⁾

히치콕 감독은 감각적이고 무심하며, 순수한 성적 매력을 지닌 켈리의 이중성을 높이 평가하였다. 그는 피어오르는 정열을 우아한 외관으로 은폐한 켈리의 능력을 “섹슈얼 엘레강스(sexual elegance)”라고 요약하였다.²³⁾ 라이프 매거진도 “그녀 성공의 토대는 신선함과 정숙함, 그 밑에 숨어있는 성적매력의 결합이다.”²⁴⁾라고 지적하였다.

섹슈얼 엘레강스는 켈리의 레이디라이크 스타일에서도 성적매력을 암시하는 디테일을 통해 구현되었다. 도회적 우아함을 풍기는 의상의 디자인도 의외의 대담한 디테일이 숨어 있음을 알 수 있는데 특히 <이창>의 우아한 흑백 드레스에는 앞뒤 V자로 대담하게 파인 목선이 특징이고, 옅은 올리브 그린채킷 속에는 등을 과감하게 드러낸 할터 네크라인 블라우스를 입었다²⁵⁾<그림 1, 2>. 이 밖에도 어깨와 등 부분이 레이스로 된 빨간색 원피스, V자로 깊은

목선과 비치는 소재로 어깨와 등을 감싸 은근한 노출을 보여준 검은 드레스 등이 비치는 소재로 우아하면서도 은근한 신체 노출을 보여주었다<그림 11, 12>.

이브닝웨어에서는 어깨와 목 부분을 직접적으로 노출한 것이 특징인데, 섬세한 주름으로 고전적 아름다움을 강조한 스트랩리스 드레스가 있다<그림 13, 14>.

이처럼 켈리는 당시 여성의 가슴에 성적 매력이 집중되었던 당시의 스타일과는 달리 목이나 어깨, 등을 비치는 소재로 은근히 노출하거나 직접적으로 노출함으로써 우아함과 성적매력을 결합시킨 레이디라이크 스타일을 구현하였다. 이것은 숙녀임과 동시에 이면에 자신이 원하는 남성에게는 대담한 성적 매력과 정열을 가진 여성임을 암시하였다.

4. 자연스런 메이크업과 금발

1950년대에는 짧은 헤어스타일이 유행하여 귀걸이가 유행하였으며²⁶⁾, 화장은 1940년대 입술을 강조하던 것에서 눈을 강조하는 것으로 변화가 있었다.

켈리의 헤어스타일은 크게 깔끔하게 빗어 넘긴 금발의 웨이브 헤어로 단정한 이미지를 주는 페이지보이 보브(pageboy bob) 스타일과, 오스카 시상식과 <이창>에서 보여준 기품과 우아함을 한껏 강조한 시농 스타일로 나눌 수 있다<그림 15, 16>. 켈리의 금발 이미지는 남성의 성적 대상이기를 거부하는 차갑고 우아한 금발미인 즉 ‘쿨 블론드(cool blonde)’ 이미지를 상징함으로써 당대 마릴린 먼로의 금발이 ‘덤 블론드(dumb Blonde)’, 즉 백치미를 상징하였던 것과 대조를 이루었다.

또한 켈리는 당시 유행이었던 짙은 눈 화장을 따르지 않고 깔끔하게 정리된 눈썹과 자연스런 화장을 즐겼으며, 빨간 립스틱으로 여성적 매력을 강조하였다.

V. 2000년대 이후 패션에 나타난 켈리의 레이디라이크 스타일

과거 대중의 모방을 불러일으켰던 스타와 동일시된 록이나 이미지는 과거에 대한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중요한 매개체 역할을 한다. 따라서 최근처럼 복고풍이 트렌드의 흐름을 주도할 때, 디자이너들은 과거 대중스타에게서 영감을 얻은 스타일을 제시하고, 대중들도 스타와 그 시대를 떠올리며 향수에 젖게 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켈리의 레이디라이크 스타일은 1950년대 A라인과 H라인의 슈트와 드레스에 진주 장신구와 장갑, 핸드백, 선글라스, 브로치 등의 코디네이션과 숙녀로서의 자신감과 태도로 완성되었으며, 2000년대 이후 컬렉션에서 현대적이고 젊은 감각으로 전개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고전적인 레이디라이크 스타일의 절정을 이루었던 2004 F/W의 컬렉션은 셀린(Celine)과 마크 제이콥스(Marc Jacobs)가 주도하였는데, 장갑, 진주 목걸이, 토트백, 벨트와 선글라스 등의 액세서리와 함께 허리를 강조한 슈트, 드레스 등을 선보였으며, 특히 페티코트를 받쳐 입은 듯한 드레스와 치마로 A라인과 H라인의 복고풍 무드를 현대적으로 해석하여 소개했다. 셀린의 우아하고 여성적인 이미지는 켈리의 시티 엘레강스 룩을 연상시킨 반면, 마크 제이콥스는 다채로운 색상과 리본, 레이스 등의 디테일을 강조하여 은근한 노출효과를 보여준 켈리의 섹슈얼 엘레강스 룩을 연상시켰다<그림 17, 18, 19>.

2005 S/S 뉴욕 컬렉션에서 도나 카란(Donna Karan)은 과거, 현대 미래가 공존하는 우아하고 세련된 레이디라이크 룩을 펼친 것으로 평가받았으며, 파리 컬렉션의 로샤(Rochas)도 전통적인 여성미를 앞세운 전반적으로 차분하고 여성스러운 레이디라이크 룩을 선보였다. 로샤의 아이스 블루, 메탈릭 그린, 블랙 컬러의 포멀한 스커트 슈트, 드레스, 브래지어를 연상케 하는 디테일은 원피스, 드레스 등의 페

미닌 라인에 섹시함을 더해주었다.²⁷⁾

특히 빌 블라스(Bill Blass)는 기품 있는 우아하면서도 은근한 여성미를 강조한 의상들을 발표하여 켈리의 비치는 소재로 어깨를 노출한 원피스나 스트랩리스 이브닝 드레스에서 보여준 섹슈얼 엘레강스와 연관되었다<그림 20, 21>.

한편 유행에 상관없이 미국적인 실용주의에 영국풍의 귀족적 우아함을 결합시킨 것으로 유명한 랄프 로렌(Ralph Lauren)은 편안하면서도 고급스러운 캐주얼 룩으로 켈리의 럭셔리 캐주얼 룩을 연상시키는 한편 기품이 느껴지는 슈트도 있었다<그림 22, 24>. 또한 오스카 드 라란타(Oscar de la Renta)는 켈리의 고급스러운 브로케이드의 라운지웨어가 더욱 화려한 이브닝웨어로 변모된 듯한 의상을 소개하였다<그림 23>.

또한 기품 있고 우아한 여성미와 최고 권위의 왕족 이미지가 결합된 그레이스 켈리는 럭셔리 브랜드의 액세서리 디자인에도 영감이 되었다. 악어나 타조가죽 등 다양한 소재와 크기, 다채로운 색상으로 선보이고 있는 에르메스의 켈리 백은 이미 클래식 아이템으로 신분의 상징이 되고 있으며, 2005 S/S 컬렉션에서 구치(Gucci)는 에르메스가 켈리를 위해 디자인한 스카프의 꽃무늬를 구두, 핸드백, 수영복 등에서 화려하게 부활시켰다<그림 25, 26>.

이러한 레이디라이크 스타일의 유행은 할리우드에서도 볼 수 있는데, 특히 어린 나이에 지적이면서도 묘한 관능적인 분위기로 유명한 스칼렛 요한슨(Scarlett Johansson)은 뒤로 넘긴 금발 웨이브 헤어와 자연스런 화장에 빨간 립스틱으로 포인트를 준 모습이 그레이스 켈리를 연상시켰다<그림 27, 28>.

이상에서 현대패션에 나타난 그레이스 켈리의 레이디라이크 스타일을 고찰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VI. 요약 및 결론

엘레강스가 핵심인 그레이스 켈리의 레이디라이크 스타일을 고찰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켈리의 시티 엘레гант 룩(City elegant look)은 1950년대 A라인, H라인 실루엣으로, 가슴보다는 허리를 강조한 것이 특징이다. 무릎을 덮는 길이의 펜슬 스커트와 재킷으로 이루어진 테일러드 슈트, 플리츠, 개더, 페티코트로 부풀린 스커트의 원피스, 등은 리본, 레이스, 꽃무늬 등 여성스러움을 풍기는 디테일과 진주 장신구, 모자와 장갑, 핸드백이 더해져 켈리의 기품 있는 스타일을 구성하였다.

둘째, 럭셔리 캐주얼 룩(Luxury casual look)은 스포팅 이미지에 기반을 둔 고급스런 캐주얼 룩으로 상류층 감각의 여유로운 우아함을 느낄 수 있었다. 대표적으로 셔츠 블라우스와 폭이 좁은 날씬한 바지, 벨트, 에스파드릴, 행커치프로 이루어진 캐주얼 차림은 베이지, 갈색, 주홍색의 클래식한 색채조화와 상류층 감각의 세련됨을 보여주었다.

셋째, 섹슈얼 엘레강스 룩(sexual elegance look)은 켈리의 차가운 우아함 속에 감추어진 미묘한 성적 매력이 잘 드러난 룩으로, 가슴을 강조하기 보다는 목이나, 등, 어깨부분에 은근한 성적 유혹이 암시되었다. 즉 V 네크라인, 스위트하트 네크라인, 스트랩리스 네크라인으로 목과 어깨부분을 노출하거나 레이스와 그 밖의 비치는 소재로 팔과 어깨를 간접적으로 노출하도록 디자인된 의상이 많았다.

넷째, 켈리는 뒤로 넘긴 금발의 웨이브 헤어로 단정한 이미지를 주는 페이지보이 보브 스타일과, 기품있고 우아함을 강조한 시농스타일

을 자주 볼 수 있으며, 자연스런 화장에 빨간 립스틱으로 마무리한 차가운 금발 미인 즉 쿨 블론드(cool blonde) 이미지를 구현하였다.

이와 같이 페미닌 클래식 스타일에 성적 매력을 결합시킨 우아함이 돋보이는 켈리의 레이디라이크 스타일은 2000년대 이후부터 시작된 복고풍의 레이디라이크 스타일 등장 이래 2004년 F/W 셀린, 마이크 제이콥스, 프라다 컬렉션에서 절정을 이루었고, 2005년 S/S에서는 도나 카란, 로사 등에서 전통적인 우아한 여성미에 젊고 섹시한 매력을 강조한 현대적인 스타일로 나타났다. 또한 럭셔리 액세서리 브랜드 에르메스의 켈리 이름을 딴 핸드백, 구치에서 켈리의 에르메스 스카프 꽃무늬를 부활시켜 전개한 2005 S/S 크루즈 라인 등에서 켈리가 대표하는 레이디라이크 스타일의 영향력을 엿볼 수 있다.

이상의 연구에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이끌어 낼 수 있다.

첫째, 켈리가 구현한 고상한 레이디라이크 스타일은 우아함과 성적매력을 잘 조화시킨 페미닌 엘레강스가 핵심이며, 남녀모두에게 호소력을 지닌 클래식 스타일의 하나로 자리잡았다.

둘째, 그레이스 켈리는 패션에 대한 세련된 안목으로 자신의 독립적인 정체성을 패션스타일로 잘 구현하였으며, 할리우드에서 보기 드문 고상한 레이디라이크 이미지로 성공할 수 있었다.

셋째, 그레이스 켈리가 오늘날까지 현대패션의 영감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경제적 능력과 자신감으로 남성의 성적 대상으로 소비되기를 거부하면서 여성적 매력을 우아함과 잘 조화시킨 이상적 여성상을 구현하였기 때문이다.

<표 1> 현대패션에 나타난 켈리의 레이디라이크 스타일

	그레이스 켈리의 레이디라이크 스타일	현대패션에 나타난 켈리의 레이디라이크 스타일 (2000년대 이후)
화장과 헤어스타일	자연스런 메이크업, 빨간 립스틱 뒤로 넘긴 금발의 페이지보이 보브, 시농 	
패션 스타일	시티 엘레гант 룩(City elegant look) 	
	럭셔리 캐주얼 룩(Luxury casual look) 	
	섹슈얼 엘레гант 룩(Sexual elegance loo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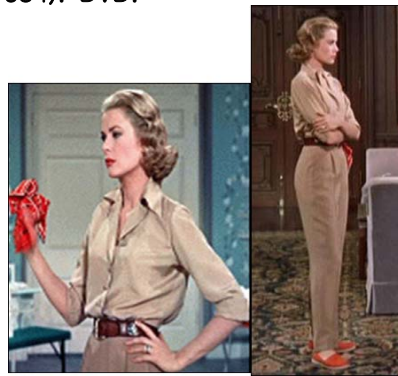
<그림 1> 블랙 탑과 화이트 풀 스커트. <이창> (1954).DVD.



<그림 2> 올리브 그린의 슈트, 필박스 햇, 할터 네크라인 블라우스. <이창> (1954). DVD.



<그림 3>모나코로 가는 배 안에서 기자회견. 1956.4 『Looking For Jackie』



<그림 4>고급스럽고 우아한 팬츠 룩.<상류사회>(1956). DVD.



<그림 5> A라인 코트.<상류사회>(1956). DVD.



<그림 6> 중국풍의 라운지 웨어. <상류사회>(1956).DVD.



<그림 7> 흑백의 비치웨어. <나는 결백하다> (1955) DV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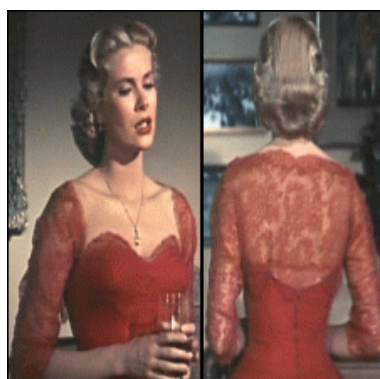
<그림 8> 청바지와 셔츠블라우스 차림.<이창>(1954). DV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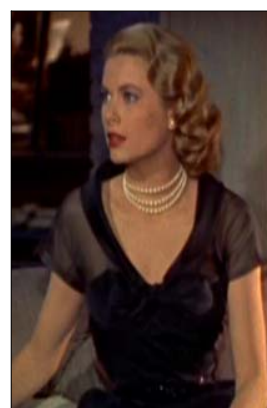
<그림 9> 모나코의 레니에 왕자와의 약혼발표 때 켈리백을 든 모습. 1956. 『Looking for Jackie』



<그림 10> 켈리백을 든 켈리. 1958 『The Fashion Book』



<그림 11> 레이스로 팔과 등을 감싼 드레스. <다이알 M을 돌려라>(1954) DVD



<그림 12> 비치는 소재로 어깨와 등을 감싼 드레스.<이창>(1954). DVD



<그림 13>블루톤의 고전적인 드레스<나는 결백하다> (1955)DVD



<그림 14>섬세한 주름의 스트랩리스 드레스<나는 결백하다> (1955)DVD



<그림 15>뒤로 넘긴 금발의 웨이브. <이창> (1954). DVD



<그림 16>오스카 여우주연상 수상식 때의 시봉. 1955. www.mptv.net



<그림 17>A라인 원피스. 셀린. 04 F/W. www.firstview.com



<그림 18>벨티드 베이지 슈트. 셀린. 04 F/W. www.firstview.com



<그림 19>레이스 장식의 원피스. 마크 제이콥스. 04 F/W www.style.com



<그림 20> 비치는 소재의 블랙 드레스. 빌 블라스 05 S/S www.style.com



<그림 21>스트랩리스 드레스. 빌 블라스 05 S/S www.style.com



<그림 22> 고급스럽고 편안한 팬츠룩. 랄프 로렌 01 F/W www.style.com



<그림 23> 화려한 브로케이드의 코트와 팬츠. 오스카 드라 란타 03F/W www.style.com



<그림 24> 심플하고 고급스런 슈트. 랄프 로렌 05 S/S www.style.com



<그림 25> 에르메스의 '켈리 백' 『Icons of Fashion』



<그림 26> 2005 S/S 구치의 플로라 라인. www.gucci.com



<그림 27> 켈리 이미지의 스칼렛 요한슨. Elle Korea 2004 .10



<그림 28> 시농 헤어의 요한슨. www.yahoo.co.kr

참고문헌

- 1) "Good Girl Player", *Elle Korea*, March, 2005. pp.280-284.
- 2) <다이얼 M을 돌려라(Dial M for Murder)>(1954), <이창(Rear Window)>(1954), <나는 결백하다 (To Catch A Thief)>(1955), <상류사회(High Society)>(1956) 등 켈리의 대표적인 이미지가 드러나는 영화를 대상으로 하였다.
- 3) 2000년 프라다의 S/S 컬렉션에서 실크의 리본 블라우스와 플리츠 스커트 카디건 스웨터를 포함한 컬렉션과 가을 컬렉션의 사감 선생의 뿔테 안경을 닮은, 끝이 살짝 올라간 안경을 쓴 여성들이 파스텔 컬러의 수트를 입고 등장한 이후 레이디 스타일은 5년간 장수에 가까운 인기를 누렸다. *Elle Korea*, March, 2005, p.280
- 4) *브리타니카 백과사전* retrieved July, 12, 2005, from www.britannica.com
- 5) Kate Mulvey & Melissa Richards(1998). *Decades of Beauty: the Changing Image of Women, 1890s-1990s*, London: Octopus Publishing Group Ltd., p.108.
- 6) Patricia Baker(1992). *Fashions of a Decade: the 1950's*, Facts on File, p.48.
- 7) 조규화, 이희승(2004). *패션미학*, 서울: 수학사, p.214.
- 8) 앞 글, p.215.
- 9) Caroline Rennolds Milbank(1996). *New York Fashion: The Evolution of American Style*, New York: Harry N. Abrams. p.14.
- 10) 앞 글, pp.145-147.
- 11) Caroline Rennolds Milbank(1996), *20th Century Fashion*, London: Thames & Hudson, p.170.
- 12) Kathleen Craughwell-Varda (1999). *Looking for Jackie: American Fashion Icons*. New York: Hearst Books. p.129
- 13) 앞 글, p.132
- 14) 빙 크로스비(Bing Crosby)가 연기한 알콜 중독자이자 페인의 촌스러운 부인 역이었다.
- 15) Kathleen Craughwell-Varda(1999). p.132
- 16) 앞 글, p.133.
- 17) David Bond(1992), *Glamour in Fashion*. London: Guinness Publishing, p.103.
- 18) Kathleen Craughwell-Varda(1999). p.131
- 19) Stella Bruzzi(1997). *Undressing Cinema: Clothing and Identity on the Movies* (London: Routledge), p.18.
- 20) Kate Mulvey & Melissa Richard(1998), p.133.
- 21) Zeshu Takamura(1993). *Fashion with Style* (Tokyo: Graphic-sha Publishing Co., Ltd.), p.117.
- 22) Stella Bruzzi & Pamela Church Gibson(ed)(2000), p.205.
- 23) Kathleen Craughwell-Varda (1999).p. 132.
- 24) "The Basis for her success is her combination of freshness, ladylike virtue and underlying sex appeal." -*Life magazine*, 1954. 앞 글, p.133에서 재인용.
- 25) Stella Bruzzi & Pamela Church Gibson(ed)(2000). pp.205-207.
- 26) Kate Mulvey & Melissa Richard(1998), p.127.
- 27) *엘르 코리아* retrieved Feb., 7, 2005, from www.elle.co.kr

(2005년 3월 25일 접수, 2005년 5월 3일 채택)